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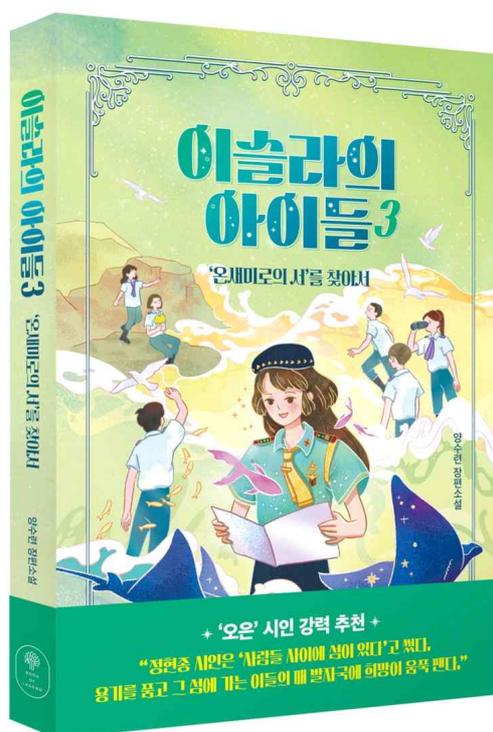
한 학기 한 권 읽기

교사용

# 『이슬라의 아이들 3』

‘온새미로의 서’ 를 찾아서

독서 지도안



작성 | 권유정(서울 자운고등학교 사서교사)

이 독서지도안은 책이라는신화 블로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chaegira\\_22](https://blog.naver.com/chaegira_22)



## 책 소개

### “난 힘들더라도 깨끗하게 내 길을 가고 싶어.”

누구보다 자유롭게 바다를 누비던 오션맨 야니. 18년 만에 나타난 엄마, 그리고 13대 카이라는 무거운 자리로 인해 자신을 잃어버린 듯하다. 과연 가온을 만나 ‘온새미로’의 서‘만 찾으면 문제가 해결될까? 야니는 원정대를 꾸려 자신을 찾기 위한 모험을 떠나기로 마음먹는데…….

여덟 개의 바다를 건너 잃어버린 ‘나’ 를 찾아가는 신비로운 여정  
인생이라는 큰 바다를 헤엄쳐 갈 용기만 있다면  
밀려오는 파도 위에서도 나만의 항해를 즐길 수 있다!



소설을 읽기 전에 생각해 보아요

『이슬라의 아이들 3: ‘온새미로의 서’를 찾아서』는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아 나선 야니의 여정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야니는 이슬라의 상징이 된 ‘카이’로서, 그리고 여전히 자유를 갈망하는 ‘야니’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가온을 만나러 가겠다고 결심합니다. 이번 여정에는 새로운 동료들이 함께합니다. 2권에서 만났던 울과 시하, 그리고 원정대에 합류한 마에, 레아, 포, 배로, 그리고 오랜 세월 가온을 찾아 헤매던 야니의 엄마 아모, 야니의 수행원 단디까지. 이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가온원정대’에 합류해 가온과 ‘온새미로의 서’를 찾기 위해 항해를 시작합니다. 위대한 가온의 시 ‘온새미로의 서’를 찾기 위한 항해는 곧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다의 끝에서, 아이들은 마침내 진정한 ‘온새미로의 서’를 찾게 되지요.

가온원정대와 함께 항해를 떠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진짜 내 모습으로 살고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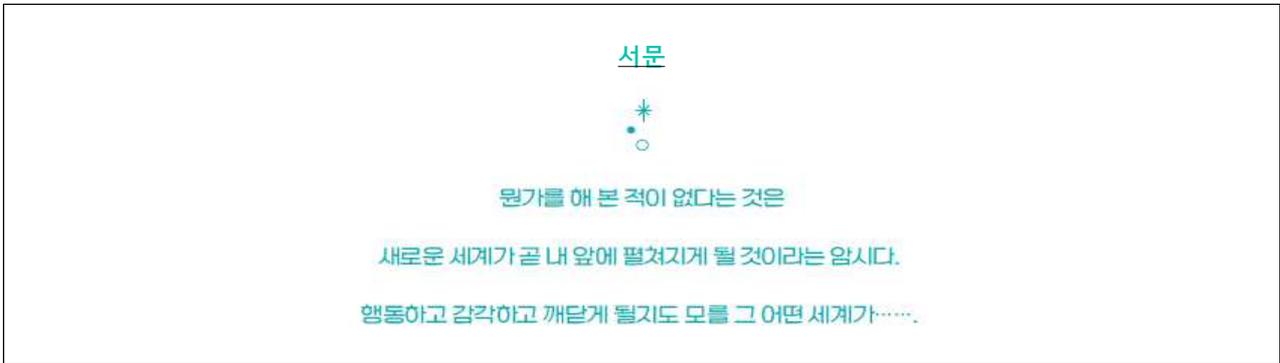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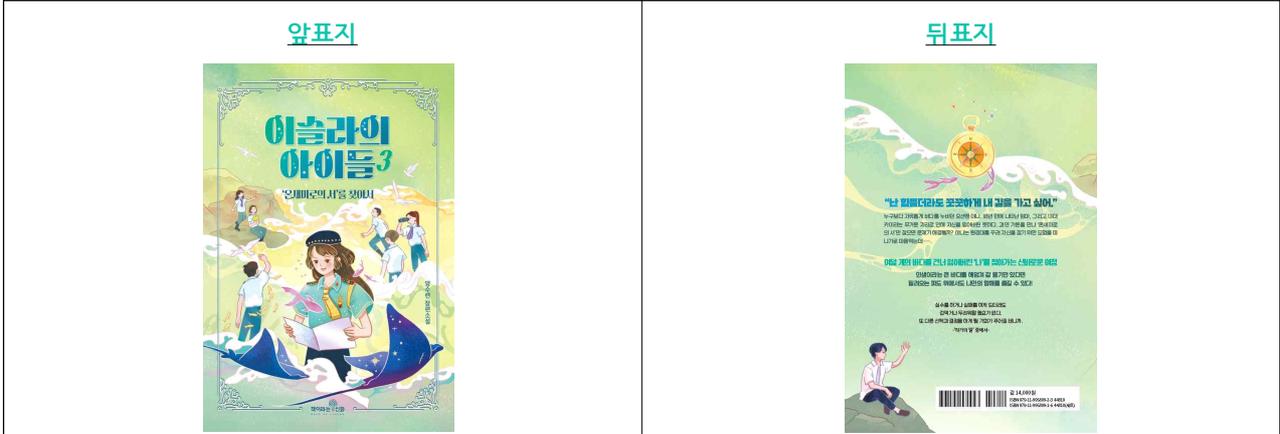
## 독서 계획

차시	단계	활동 내용	쪽수
1	독서 전	이슬라 입도 준비: 표지로 미리 만나는 세계	4
2	독서 중·후	가온원정대 탐구 일자: 인물 정리하기	5
3		가온원정대 향해 지도: 사건 기록하기	6
4	독서 후	독서 질문으로 확장하며 책 읽기	7
5		이슬라의 아이들, 책에서 온 편지	10

1차시

독서 전 활동 - 이슬라 입도 준비: 표지로 미리 만나는 세계

여러분이 읽게 될 소설 『이슬라의 아이들 3: '온새미로의 서'를 찾아서』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소설을 읽기 전에 앞표지와 뒤표지, 서문을 살펴본 뒤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독서 전 질문	내 생각 정리하기	독서 후 질문	내 생각 정리하기
표지 그림에는 어떤 장면과 분위기가 담겨 있나요?		→ 실제 내용과 비교했을 때 일치했나요? 다르게 느껴졌나요?	
『이슬라의 아이들 3』의 부제는 <'온새미로의 서'를 찾아서>입니다. 어떤 내용이 펼쳐지게 될지 상상해 보세요.		→ 『이슬라의 아이들 3: '온새미로의 서'를 찾아서』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요약해 봅시다.	
서문은 각 도서의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문의 주제어를 선정하고, 중요 주제어를 선택해 보세요.		→ 책을 읽고 난 뒤, 서문을 다시 살펴보고 서문 의미를 해석하여 적어 봅시다.	
아직 해 보지 않은 일에는 어떤 새로운 세계가 숨어 있을까요?		→ 이 책을 읽고 난 지금, 여러분에게 '아직 해 본 적 없는 새로운 세계'는 무엇인가요? 그곳에서 어떤 나를 만나고 싶나요?	

『이슬라의 아이들 3: '온새미로의 서'를 찾아서』에 등장하는 가온원정대 대원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여정에 참여하지만, 그 과정에서 모두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가온원정대의 인물 중 한 명을 선택하여 성격과 특징, 참여 동기, 브이아르섬에서의 경험을 정리해 봅시다. 또한 각 인물에게 부여된 상징색의 의미를 탐구하며, 그 색이 인물의 내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세요. 여정을 마친 인물들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기록하고, 친구들과 각 인물의 여정과 성장을 나누어 봅시다.

( )의 모습 그려보기	( )의 성격과 특징	( )가 가온원정대에 참여하게 된 이유
브이아르섬에서 ( )의 모습 그려보기	브이아르섬에서 ( )에게 부여된 상징색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여정을 마무리한 뒤, ( )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 )를 선택하여 탐구 일지를 쓰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3차시 독서 중·후 활동 - 가온원정대 항해 지도: 사건 기록하기

『이슬라의 아이들 3: '온새미로의 서'를 찾아서』에서 가온 원정대는 '온새미로의 서'를 찾아 여덟 개의 바다를 건너며 수많은 섬을 지나갑니다. 각 섬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감정과 깨달음, 그리고 인물의 성장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가온원정대가 방문한 섬들을 중심으로 그곳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과 의미를 정리해 봅시다. 각 섬이 상징하는 감정과 주제, 인물들의 변화를 함께 기록하며 여정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정리해 보세요.



**1. 아모는 왜 야니를 선장 차르에게 맡기게 되었나요?**

아모는 자신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야니를 선장 차르에게 맡겼다. 아모는 자신이 “무능했고, 나 자신을 구원하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면서 야니를 제대로 돌볼 자신이 없었다는 것을 야니에게 고백했다. 당시 이슬라 사회는 시인 학교가 폐쇄되고, 시집이 불태워지는 등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있었다. 아모는 세상의 폭력 속에서 끊임없는 질문과 고통에 시달리며, 자신을 구원해 줄 스승 가온을 찾아 떠나야만 한다고 믿었다. 그 여정이 유일한 생의 의미이자,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 여긴 것이다. 따라서 아모는 야니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차르를 선택했다. 아모가 본 차르는 ‘좋은 부모이자 친구가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2. 야니는 왜 자신이 꼭두각시가 된 기분이라고 느꼈을까요? 또 궁궐에서의 야니는 어떤 마음과 감정을 느꼈을까요?**

야니는 궁궐에서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고 느꼈기 때문에 꼭두각시가 된 기분이라고 말한다. 바다의 오아시스호에서 지낼 때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았지만, 이슬라 궁궐에서는 모든 일이 정해져 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조차 스스로 결정할 수 없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카이’라 부르며 완벽한 존재로 만들려 했지만, 야니는 점점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잃어 가고 있다는 두려움과 공허함을 느꼈다. 겉으로는 안정되고 평온한 궁궐이지만, 그 안에서 야니는 자기 의지와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과 외로움 속에 있었다. 그래서 야니는 자신이 껍데기만 남은 존재, 타인의 기대에 의해 조종당하는 꼭두각시가 된 것 같다고 느낀 것이다.

**3. 야니는 왜 가온을 꼭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을까요?**

야니는 자신이 누구인지, 진짜 ‘나’를 알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가온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이슬라에서 ‘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살아가지만, 그는 점점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 가고 있다고 느꼈다. 친구의 꿈조차 지켜 주지 못한 자신이 이슬라의 평화와 행복을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한 야니는,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가온을 만나야 한다고 느꼈다.

**4. 로인은 왜 손님이 없어도 방주책방의 불을 끄지 않았을까요? 그 불빛은 로인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로인이 방주책방의 불을 끄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히 손님을 기다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항구에 닿지 못한 배들을 위한 등대처럼, 이슬라에서 쫓겨난 오션맨을 향한 로인의 희망과 위로의 신호였다. 아루는 그 불빛이 단순한 조명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다리고 기억하려는 로인의 사랑과 연민의 상징임을 깨닫게 되었다.

**5. 레아는 직접 원정대에 지원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대신 가온원정대에 신청하여 선발되었다. 레아의 아버지가 딸의 지원서를 직접 작성하여 대신 제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레아는 쿼텀백신의 효과로 감정의 기복이 거의 없는 아이였다. 기쁜 일에도 크게 웃지 않고, 슬픈 일에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 딸을 본 아버지는 레아가 너무 차분하고 어른스러워 마치 감정을 잃은 사람처럼 느껴졌고, 그 모습을 안타까워했다. 그래서 아버지는 원정대 참여를 통해 레아가 직접 세상을 보고 느끼며, 자신의 감정과 진짜 마음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원서를 대신 제출한 것이다. 즉, 레아의 아버지는 딸이 완벽한 아이로 평정심을 갖고 사는 것보다 불완전하지만 진짜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랐던 것이다.

**6. 노란 꽃을 가꾸는 정원섬에 살고 있던 배로는 왜 붉은 장미를 심고 싶었을까요?**

배로가 붉은 장미를 심고 싶어 한 이유는 정해진 전통과 색에 갇힌 삶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색과 개성을 찾고 싶었기 때문이다. 정원섬은 대대로 노란 꽃을 가꾸어 온 섬이었고, 그 규율은 배로의 가족에게는 명예이자 자부심이었다. 그러나 배로에게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굴레였다. 붉은 장미는 배로가 느끼는 열정, 자유, 그리고 변화의 상징이었다. 그는 조부와 아버지가 완성한 ‘노란 섬’이 아닌, 자신의 손으로 새로운 정원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다. 즉, 붉은 장미는 전통에 순응하던 배로가 자신의 길을 찾고, 진짜 자신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내면의 욕구를 드러낸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지도 tip** 정답이 없는 독서 질문입니다.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7. 아모는 왜 야니 몰래 가온원정대에 참여했나요?**

아모가 야니 몰래 가온원정대에 참여한 이유는, 가온을 만나겠다는 평생의 염원과 미련을 끝내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십수 년 동안 스승 가온을 찾아 헤매며 인생 대부분을 그에게 바쳐 온 아모는, 이번 기회가 마치 가온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다. 또한 딸 야니가 자신과 같은 길을 걸겠다고 했을 때,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야니가 대신 완성해 주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결국 아모는 가온을 향한 그리움과 자신의 지난날을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야니에게 알리지 않은 채 원정선에 오르게 된 것이다.

## 8. 책 속에서 발췌한 아래의 내용을 읽고,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야니는 뜨악했다. 뭔가 잘못됐다. 가온을 시인으로, 그것도 시인의 왕좌에 올려놓은 시 중의 시 '온새미로의 서'가 아니던가. 읽을 수도 없는 저 돌무더기가? 야니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온이 남겼다는 단 한 편의 시는 그들의 눈앞에 있는 돌무더기 균락이었다.

“다들 가온의 서가 글로 된 시라고 곧잘 오해들 하지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사물의 형상에서 인간의 언어가 태어났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은 채 말이지요.”

알리는 빙긋 미소를 머금었다.

빛의 언덕은 가온이 살던 곳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섬을 지키기 위해 방파제를 쌓다가 목숨을 잃은 이들을 위한 곳이 된 지 오래였다.

“어느 해던가, 이곳의 많은 청년이 모여 방파제를 쌓고 있었지요. 태풍에 만반의 준비를 하려던 거였는데…… 청년들이 쌓은 방파제 일부가 태풍에 무너지는 바람에 그만…… 스승님은 그때 목숨을 잃은 백오십육 명의 청년들을 위해 이곳에 돌탑을 쌓으셨지요. 그리고 백오십육 개의 돌탑이 완성된 그날, 가온 스승께서 말씀하셨지요. '온새미로의 서'가 드디어 완성됐다고.”

그랬다. 가온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청년들을 위해 자신이 살던 곳에 돌탑을 세우고 그 위에 등심붓꽃을 심었다. 돌탑 하나하나에 청년의 이름을 새겨 그들의 생을 일깨웠다. 가온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삼 년에 걸쳐 쌓은 백오십육 개의 돌탑은 태풍에도 휩쓸리거나 무너지는 법이 없었다.

돌무더기 균락은 존재 그대로 완벽한, 그야말로 '온새미로의 서'로 재탄생했다. 가온에 대해 알면 알수록 야니는 가온을 더 모를 듯했다. 시인의 왕이란 표현도 '온새미로의 서' 앞에선 부족하게만 여겨졌다.

야니는 온 마음과 온 신경으로 감각해야 하는 초월적인 시 '온새미로의 서' 앞에서 그 어떤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대원 모두의 말과 생각을 한순간에 잊아 간 가온의 서였다.

『이슬라의 아이들 3: '온새미로의 서'를 찾아서』 본문 중에서

### ① 가온이 남긴 '온새미로의 서'는 글이 아닌 돌무더기 균락의 형태였습니다. 그렇다면, 가온은 왜 시를 글이 아닌 돌탑으로 남겼을까요?

가온은 시를 단순히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존재의 흔적으로 남기고자 했던 것 같다. 그는 태풍으로 목숨을 잃은 청년들을 위해 돌탑을 세우며, 그들의 이름을 새김으로써 죽음 속에서도 이어지는 생명의 의미를 전하고자 했을 것이다. 가온에게 '시'란 종이에 적는 문장이 아니라, 사람의 손과 마음이 함께 쌓아 올린 기억과 진심이었던 때문이다. 그래서 글보다 오래 남는 돌로, 눈으로 읽는 시가 아닌 마음으로 느끼는 시를 남긴 것이다.

**지도 tip** 책을 읽고 느낀 점이나 해석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 ② '온새미로의 서'가 전하려는 진정한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온새미로의 서'는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쁨과 슬픔, 탄생과 죽음처럼 서로 다른 감정과 사건들이 모여 세상을 이루듯, 불완전한 조각들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온전한 세계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완벽함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의 조화, 인위적인 아름다움이 아닌 자연스러움의 가치를 일깨워 주는 시라고 할 수 있다. '온새미로의 서'는 우리가 각자의 모습 그대로 존재할 때, 비로소 진정한 '완전함'에 다가갈 수 있음을 전하는 것이다.

**지도 tip** 책을 읽고 느낀 점이나 해석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 9. '온새미로의 서'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덟 개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온이 말한 '여덟 개의 바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덟 개의 바다'는 인간의 감정을 상징하는 상징의 언어로, 가온이 말한 '온새미로의 서'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지나야 하는 마음의 여정이다. 각 바다는 인간이 살아가며 경험하는 기쁨, 노여움, 미움, 슬픔, 두려움, 근심과 걱정, 사랑과 같은 감정을 상징한다. 따라서 여덟 개의 바다는 단순한 시적 공간이 아니라, 인간이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기 위해 건너야 하는 내면의 바다라고 할 수 있다.

**지도 tip** 책을 읽고 느낀 점이나 해석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 10. 야니가 아루를 바라보며 “또 하나의 ‘온새미로의 서’”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 하나의 ‘온새미로의 서’가 여기 있었네.”

야니는 아루를 돌아보곤 혼잣말을 했다. 그리고는 발길을 돌렸다. 야니의 걸음에 보조를 맞춘 아루가 말했다.

『이슬라의 아이들 3: ‘온새미로의 서’를 찾아서』 본문 중에서

야니가 아루를 바라보며 “또 하나의 ‘온새미로의 서’”라고 말한 것은, 아루가 마침내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마주하고 표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아루는 이슬라의 규율과 시선 속에서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이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불완전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보였다. 야니는 그런 아루의 변화 속에서, 자연스러움과 진정성을 담은 ‘온새미로의 서’의 정신, 즉 완벽함이 아닌 불완전함 속에서 피어나는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이다. 결국 아루는 완벽함을 강요받던 세상 속에서도 자신만의 언어로 숨 쉬며 살아가는 존재, 바로 또 하나의 ‘온새미로의 서’가 된 것이다.

**지도 tip** 책을 읽고 느낀 점이나 해석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